

충남 농촌 주민의 생활상

- 수도권 평야 1개 마을을 중심으로 -¹⁾

조은정 | 전.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1. 서론

그동안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사업내용을 달리하며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은 여전히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 농림어업 쇠퇴 및 소득수준 저하, 생활환경수준 취약 등의 문제를 지닌 채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 않다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박진도 등, 2005; 김태명 등, 2010).

그렇다면 과연 농촌 주민들의 삶 또는 생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통념상 그려지는 농촌의 이미지를 실증하고 그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데 반해 농촌 지역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고찰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펼쳐온 각종 농촌정책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범정부적인, 소기의 목표치를 이루어 내는데 주력한 목적 달성 지향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농촌 주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농촌주민의 삶과 생활에 대한 실제,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요구 등에 대해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다.

이처럼 농촌 주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이들의 삶과 유리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농촌 마을마다 서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다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변화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변화에 대한 역동적(dynamic)인 시각을 견지하지 못한 채 정적(static)인 시각에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어 농촌에 대한 정부사업은 마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 단편적으로 적용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미진한 수준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서 우선 농촌지역 주민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농촌 주민을 위해, 그리고 농촌마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롯하여 본 논고에서는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1) 본고는 충남발전연구원 2011년도 전략연구과제를 정리·보완한 자료임.

충남논단

농촌 주민의 생활상에 기반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충남도내 수도작 평야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의 변화는 신석기 농경문화가 정착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촌사회의 변화를 말할 때, 산업혁명 이후의 농촌 사회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농촌사회가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서구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 도시가 부각되었고 농민들은 점차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농촌사회는 어디까지나 도시에 값싼 음식물과 저임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후지로 기능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은 도시와 차별화되는 농촌만의 역할을 모색하기보다, '농촌지역의 도시화'를 주장하며 정부가 개입하여 개발하여야 할 지역으로 인식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농촌사회는 단지 인구의 감소, 빈곤,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도 그랬다(임형백·조중구, 2004).

농촌사회의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는 1970년 1,850만 명에서 2005년 876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행정구역상 '면' 단위에서 살펴보면 1975년 대부분의 면 규모가 인구수 10,000명 이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4,000명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0년 만에 4.2%에서 18.1%로 증대하여, 우리 농촌 사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향후 10년이 지나면 현재 인구의 42% 정도가 더 줄어들고, 노령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60세 이상이 80%, 8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병기, 2010). 이처럼 농촌인구의 과도한 이탈과 고령화로 농촌사회의 활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농촌의 경제적 낙후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1960년대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식량자급에 열을 올렸으며 이를 위한 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1976-1978년 우리나라는 쌀 자급자족을 마침내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의 생산량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쌀은 점차 남아돌게 되어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들어 해외의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식량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가격면에서도 수입농산물에 뒤처지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 또한 줄어들면서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고, 식량공급지로서의 농촌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임형백, 2006). 농가소득의 하락은 농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의 취업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농촌사회는 과거 농업만이 삶을 지탱시켜주는 공간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이 결합되는 공간으로 변

모하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소득을 증가시킬 만한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이상 차후에도 농업취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농정은 농업확장주의에 따른 농업생산력 향상에만 몰두해왔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왔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타개하고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시켜줄만한 정책의 부재로 인해 농촌지역의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의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 기능 또한 축소되었다. 농촌지역의 수많은 학교들이 폐교됨에 따라 자녀들은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도 읍이나 시 지역으로 나가야만 한다. 결국 농촌주민들은 생산수준의 저하와 함께 생활 및 문화수준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이들이 농촌 밖으로의 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윤근섭, 1993).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 사회가 악화된 것과 더불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농촌만의 특징을 만끽하고 쉴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농촌 마을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춘 공간을 무너뜨리고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로 재배치시켰다는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사랑방, 초당, 모정, 우물가, 빨래터 등의 전통적인 농촌 고유의 물리적 공간들이 사라지고 어느 마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모정, 노인정, 마을회관이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집들도 빨간색이나 파란색 지붕을 갖춘 시멘트 바른 주택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식량증산을 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농촌의 자연환경을 훼손시켰고, 토양을 산성화시켜 물질순환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아 결국 지력이 쇠약해지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소규모 가공 공장의 건립과 골프장이 난무하게 들어서면서 농촌 어메니티를 갖춘 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악영향을 받았다(김태명, 2010).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업을 바탕으로 작동하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마을에 있던 협업과 품앗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조직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라는 국가중심의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하였다. 또한 농기계가 보급됨에 따라 점차 자가 영농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들 간의 협업인 '품앗이'가 사라지게 되고, 인력이 필요할 때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마을 외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농기계의 보급과 새마을운동에 따른 농촌 사회 조직의 해체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마을을 지탱해왔던 협동노동이나 교제, 연중행사 등 영농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관행이 해체되거나 소멸되었으며, 전통적 가치나 자원 또한 사라지거나 과거와 단절되게 되었다(오창현, 2005). 혈연이나 지연조직의 사회관계도 약화되거나 해체되어, 동족이 더 이상 연대나 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게 되었으며, 마을의 축제나 공식적인 행사도 점차 소멸되었다. 보통의 농촌 마을에서는 교회나 계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만이 옛 조직들을 대체하고 있을 뿐이며, 부분적으로 영농조합이나 작목반과 같은 형태의 생산 조직들이 생겨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적 조직으로 역할하고 있다. 농업 생산 부분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마다 이어져 오

충남논단

던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생산방식은 의미를 잃어 가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기관과 마을 내 개인 간의 접촉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농촌사회는 농촌 마을의 통합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의 공동체적 관계가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관계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관계는 단단하고 결속력 있는 기존의 마을 내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결합되고 해체 가능한 도시와 농촌, 농촌 주민과 공공 기관, 마을과 마을간 등의 결합 형태를 띠고 있다.

Ⅲ. 농촌 주민의 서비스 수혜 실태

농촌 주민의 생활상 분석에 앞서 농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례지역인 논산시 채운면 화정1리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8개 부문 31개 항목)'을 적용하여 서비스 수혜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당 마을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마을 내에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이 이루어지거나 인근 지역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방, 오폐수처리, 인도, 초고속망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 부문 중 난방, 오폐수처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한 지원 확대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통 부문 중 대중교통 운행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차도와 구분된 인도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 초·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통학수단 제공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부문은 모든 항목의 서비스 제공이 양호한 수준이다. 정보통신 부문의 초고속망 서비스는 시설기반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직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단계적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Ⅳ. 농촌 주민의 생활상

1) 삶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사례마을인 논산시 채운면 화정1리 마을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주민 중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8.6%를 차지하고,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는 40.0%에 불과하다. 또한 40년 이상 장기간 마을에 거주한 주민이 많은 반면 새로운 인구 유입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최근 해당마을로 이주한 귀농·귀촌자들은 과거 자신의 생활환경이나 개인적 상황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농촌 마을에서의 생활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 정도가 달리 나타났다. 마을로의 정착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이

〈표 1〉 서비스 수혜 실태

부문	관련항목	서비스 내용	기준	실태	
주거	거주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0%이상		
	난방	도시가스 보급률(읍 지역)	50%이상	논산시 22.8%, 채운면 0%	하
		난방비 저감정책		목재펠릿보일러(20대), 태양열/태양광 보일러(1억)	중
	공동시설 프로그램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72만원/년/개소)	상중
		상설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운영(4개 프로그램, 주2회)	중하
	안전한 마실 물	상수도 보급률(면 지역)	75%이상	논산시 72%, 채운면 73%, 화정1리 100%	상
		원수 수질검사		수자원공사 실시	상
교통	대중교통 운행	먹는 물 수질검사, 수질 유지		논산시 실시(3개월마다)	상
		하수도 보급률	71%이상	논산시 47.66%, 채운면 0.10%, 화정리 0%	하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5분이내(도보)	10분 이내(도보)	상
	여객선 운행	대중교통 운행횟수	3회이상/日	4개 노선 운행, 하루 3회 ~ 10분 간격	상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프로그램		-	
	인도 설치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	왕복1회이상/日	(해당 없음)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 일부지원		(해당 없음)	
교육	유치원/초·중학교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		인도 없음	하
	고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읍·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없음	중하
		통학수단 제공		해당학교 학교에서는 통학수단을 제공하지 않음	하
	폐교요건	우수 고등학교 육성(시·군)	1개교이상	진양고등학교(사립) 2009년 선정	상중
	방과후프로그램	폐교 재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서비스기준 마련 이후 폐교 없음)	
	교육발전위원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이상	초등학교 참여율 100% 이상, 중학교 참여율 97%	상
	평생교육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시·군)		논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상중
보건 의료	1차진료서비스 순회방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거점시설	1개이상(읍·면)	채운면 주민자치센터	상중
		중요과목 의사 진료(시·군)		논산시보건소 - 내과, 한방, 물리치료 의사 9명 채운보건지소 - 내과, 한방 공중보건의 2명	상
	의약품구입	보건소 등의 마을 순회방문	1회이상/月	평균 월 1회 방문, 필요에 따라 주 1회 방문	상
		일반의약품 구입	20분내(자동차)	채운면 내 약국 2개소, 인근 읍 내 약국 16개소	상
사회 복지	노 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회이상/주	주 1~3회 방문(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름)	상
	청소년	청소년센터	30분내(자동차)	논산시청소년수련관 (20분이내)	상중
	아 동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	20분내(자동차)	이화초등학교, 논산시 전체 지역아동센터 7곳	상중
	영유아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20분내(자동차)	어린이집 1곳,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곳	상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서비스 거점시설	30분내(자동차)	논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분 이내)	상중
응급	응급서비스	구급차 도착 및 응급처치	30분이내	도착 약 5~6분 소요, 응급환자이송 약 15분 소요	상
	도서벽지서비스	헬기·선박 환자 이송체계		충남소방안전본부 1대 구축	상
	소방서비스	5분 내 소방차 도착 비율	55% 이상	강경소방대 관할, 5~6분 소요(최대 10분)	상
	도난방지	주요간선도로 방범용 CCTV설치		(자료 획득 불가)	
	경찰서비스	5분 내 현장 도착 비율	90% 이상	연무지구대 출동, 4분 소요(최대 7~8분)	상
문화 여가	독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읍·면)		야화1리 작은 도서관(열람 및 대출 가능)	상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까지 거리	30분내(자동차)	논산문화예술회관, 논산문화원(25분 이내) 등	상
		문화 프로그램 개최	1회이상/月	공연 5.4회/월, 전시 1회/월, 영화상영7회/년	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개최	1회이상/분기	분기별 평균 3.7회(논산문화예술회관)	상
정보 통신	찾아가는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2회이상/年	(자료 없음)	
	초고속망	초고속망 접속		화정리 초고속망 기반시설 미구축	하
		IPTV 시청	80%이상	화정리 광대역 통합망 기반시설 미구축	하

※ 자료 : 현지조사, 네이버 교통 정보, 논산시 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충남논단

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 상태가 이들 생활에서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세와 질병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의술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실제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또한 의료기술이나 의료진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교통 부문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버스 운행횟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다는 점, 노약자들의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점이 일부 지적되었다.

평소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본인의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노후생활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기보다 어느 곳에 거주하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같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걱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평소 어려움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와 같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대책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일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화정1리는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져 전체 취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의 비율은 1981년 86.9%에서 2011년 45.5%로 약 40%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비농업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비농업취업자들은 취업기회가 제한적이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또한 비농가 중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표 2〉 취업자 비중 및 농업 종사자 비중

	2011년		1981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마을 전체 인구	162	-	362	-
조사 대상자 전체	75	100.0	362	100.0
취업자 전체	44	58.7	222	57.5
- 농업 취업자	20	(45.5)	193	(86.9)
- 비농업 취업자	24	(54.5)	29	(13.1)
무직	18	24.0	-	-
주부	10	3.3	-	-
학생	3	4.0	-	-

※ 자료 : 현장조사 결과 및 박진도(1981) 자료 재인용

이전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도 많은 실정이다.

농업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많은 농가들은 소규모 경작지를 운영하며 1,000만원 미만의 농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농업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로 농업의 장래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라 느끼는 안전도 수준에 관

해 조사한 결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농업 종사자 20명 중 절반가량은 불안전하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10명에 달하여 농산물 가격변화로 인해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농업활동이나 농산물가격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하였다.

평소 지출비용의 용도는 의료비, 주거비, 광열수

항상 일손이 부족하고, 채산성은 점점 떨어져 걱정이 많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고, 그런데도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으니까 더 답답할 노릇이지. 사실 앞으로 농사일에 대해서도 크게 나아질 것이 없을 거야. 농사꾼들이 살려면 쌀 가격 보전부터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 윤OO 씨(59세) 인터뷰 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실질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저축이나 보험, 연금과 같은 항목은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생활비 지출이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 당장의 생계 및 생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쉼터에서의 주민 생활상

농촌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

로는 마을회관이 유일무이하며, 사실상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은 이웃 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에서 쉬고 TV를 보며 무척 단조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였다. 이 마을 노인들은 노화 또는 건강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종사하는 일이 없어 하루 전체가 여가시간이고, 반면 장년층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쉴 시간조차 없어 여가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농촌 주민들에게는 여가시간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다.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여가시간이 없어. 여기는 놀 것도 없고, 농사일이 한가할 때도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나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전부야. 마을회관도 나이 든 사람이나 가지 우리 나이 사람들이 가겠어?

- 조OO · 최OO 부부 인터뷰 중에서

충남논단

마을의 환경수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는 분리수거 또는 마을공동처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음식물 처리는 매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도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고는 향후 충청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농촌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행적 기초자료로써 충청남도 농촌 주민의 생활상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존의 문헌 및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의 서비스 수혜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현재 농촌사회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 농업 소득의 감소와 혼주화,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안정적인 삶의 유실, 농촌 공간의 획일화와 환경적 파괴에 따른 쉼터로서의 기능 상실, 농촌 마을의 공동체 관계의 붕괴와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기준하여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난방, 오폐수처리, 인도, 초고속망 4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및 단계적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쉼터, 일터, 쉼터에서의 농촌 주민 생활상을 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마을은 이미 초고령화 상태에 접어들었으며 자연사유로 인한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적인 귀농·귀촌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입주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만큼 이에 대응한 지자체의 노력도 요구된다.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높지만 실제 주민들은 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창출 및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서비스는 양호하나 응급환자 차원에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응급상황 대비교육 실시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기름 값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난방비 저감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또는 고령자 대부분은 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캠페인 형식의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업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농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의 농가소득은 매우 낮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 투자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마을의 영세 소농을 위한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비농업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형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최저생계비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이전소득의 중요성은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므로 비농가의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지원정책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해당마을은 타 농촌마을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지만 노약자들의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충남도 또는 해당 시·군 차원에서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농촌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과 프로그램 등 여가활동을 할한 여건이 마을 내에 사실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마을 내 또는 읍·면 단위 여가공간의 설치 및 활용도 증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다.

여덟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교육 및 실천이 필요하며 마을 또는 권역 단위로 간이 오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토양, 하천 등의 환경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희숙·이도희, 2004, 농촌 주민들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16권, pp.201-225
권태환, 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제2권, pp.39-56
농림수산식품부 등, 2009, 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김은정, 2011, 농촌 노인의 복지욕구 유형과 관련요인, 노인복지 연구, 제52권, pp.87-108
김창민, 2008, 마을 조사와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민속학, 제47권 제1호, pp.7-28
김태명 등, 2010,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필동, 2011, 충남지역 마을연구 : 비교와 종합, 민속원
박대식·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진도, 2010a,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pp.47-80
박진도, 2010b, 한국농촌사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 내발전 발전전략과 농촌사회의 통합적 발전, 농촌사회, 제20권 제1호, pp.163-194
박진도 등, 2005,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 한울아카데미
송정기·박재규, 2001, 농촌지역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1권 제2호, pp.37-66
오승환·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시·농촌·어촌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2권, pp.119-147
오창현, 2005, 한국 농촌공동체의 구성원리 : 농촌사회조직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근섭, 1993,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촌사회, 제3권, pp.9-37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7권 제4호, pp.774-797
임형백, 2006, 한국 농촌의 기능 변화 : 식량공급에서 국가균형 발전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7권 제1호, pp.55-65
임형백·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임형백·조종구, 2004, 생산양식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계획, 제10권 제1호, pp.41-55
최수명 등, 2011, 농촌계획학 개정판, 동명사
최윤지·황정임, 2010,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서비스 만족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7권 제4호, pp.685-716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 2008, 논산 병사마을 - 호서 3대 명족 노성윤씨의 옛 터전(충남 지역 마을지 총서), 대원사
한경혜, 2005a,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1호, pp.73-88
한경혜, 2005b,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제15권 제2호, pp.85-311

OECD, 2001,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Paris: OECD

- <http://www.nonsan.go.kr> (논산시청)
<http://chaeun.nonsan.go.kr> (채운면사무소)
<http://health.nonsan.go.kr> (논산시보건소)
<http://nongup.nonsan.go.kr>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http://arthall.nonsan.go.kr>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http://youth.nonsan.go.kr>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http://www.cnnse.go.kr> (충청남도농산계통교육지원청)
<http://www.yihwa.es.kr> (이화초등학교)
<http://www.kanggyeong.ms.kr> (강경중학교)
www.kangk-g.ms.kr (강경여자중학교)
<http://www.konyang.hs.kr> (건양고등학교)